



2017년 11월 12일(제849호) 연중 제3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열 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기름을 챙긴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지요. 그리고 앞날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이 올 때를 알았다면 그때 맞춰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슬기로운 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올 때를 알았다면 그때 맞춰서 준비했겠지만, 그때를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는 같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는 반대였습니다.

교회는 종말론과 현재에 관련하여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아가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노랫말과 같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처럼” 즐기고 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준비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단정적이고 직설적이지만, 우리가 내일을 살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생각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마치 주님께 내일이라는 시간을, 다음 주라는 시간을 맡겨놓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그러니, 다음 주에 고해성사 보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 주에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지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 주’라는 시간을 보기 전에 주님 앞에서 지난주의 그 시간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치 문밖에서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문은 항상 등 뒤에서 닫힌다.’라고 손이 눈보다 빠른 누군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후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기기에 주님께서서는 오늘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인(그레고리오) 신부
신신대(해군 직진시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6,12-16

회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시

1테살 4,13-18<또는 4,13-14>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마태 25,1-13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진리를 살다

2. 간청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첫 번째 간청은 일용할 양식인 “빵을 청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 청원을 처음부터 미사와 관련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새롭게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청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이 빵을 받아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아무 조심성도 없이 그렇게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음식을 먹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우선 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미 잊어 버렸거나 혹은 잊어버릴 위험이 있는 실천, 즉 식탁의 기도를 바치는 습관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가 제단에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 매번 주시기를 “청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체는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중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참으로 이 선물을 그리스도인답게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영성체 예식

영성체 전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의 둘째 간청은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시인해야 합니다.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사해진다고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옛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일상생활의 먼지를 늘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깨끗한 얼굴’로 이 거룩한 식탁에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청하는 기도는 영성체 준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 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최정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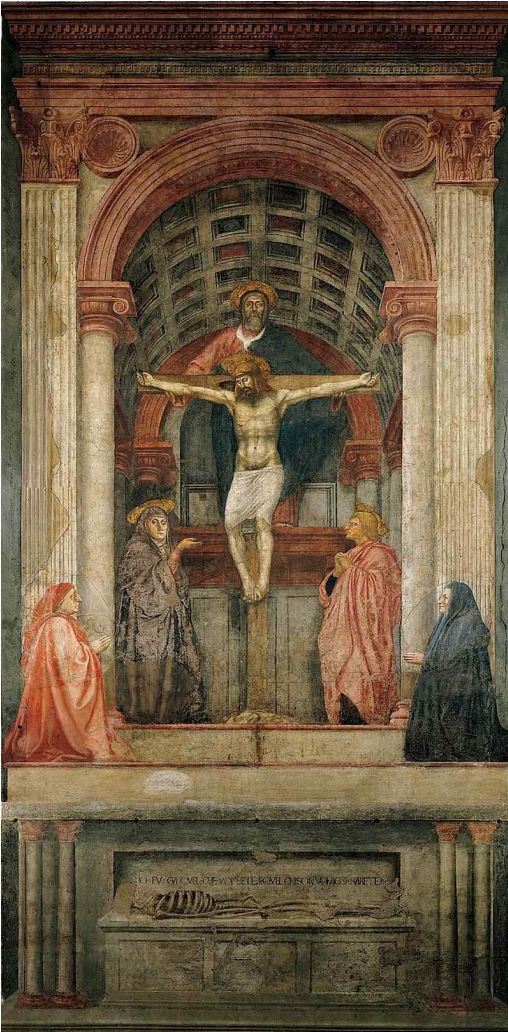
손금

미래가 궁금해
그래서 손금을 본다고

미래가 궁금하면
머리를 들어
저 하늘을 보
그 곳에
너의 찬란한
미래가 있을거야.

상화이야기

성 삼위일체



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실제 성인골격의 크기로, 관람객이 본 그림 앞에 서면, 사실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본 그림의 하단 부분인 제단과 그곳에 놓여있는 인간의 뼈 골격이다.

그 인간의 해골 뼈 위에는 “나는 한때 당신이였다(살아있었다). 그리고 당신도 곧 내 처지가 될 것이다(죽을 것이다). IO FU[] G[]A QUEL CHE VOI S[]IETE E QUEL CH[] I[]O SONO VO[]I A[]N[]C[]OR SARETE.”(I once was what you are and what I am you also will be) 라고 적혀 있다.

즉 하단에 위치한 인간의 죽음은 중앙의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그리고 상단의 예수님과 비둘기(성령), 그리고 하느님을 거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르네상스 초기에 이제 막 개발된 원근법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작품의 하나로 꼽히는 이 그림의 원근법 소실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최하단과 제단 사이이다.

김은혜(엘리사벳)

미시치오(1401-1428)
1425년 작
프레스코 667 X 317 cm
신티미리아 노벨리, 이탈리아 피렌체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생비실리오 박양신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군동해(1함대) 성당 사목방문 및 신임사제 방문
 때: 11월 12일(주일)
- 제23회 한일주교교류모임
 때·곳: 11월 13일(월)-16일(목), 일본

◆ ‘군중의 시간’ 인민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軍) 복음화, 새 열장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